

국가예산 확보에 '온 힘'

황숙주 순창군수, 세종시방문... 장군목 생태관광 활성화 도로 개설 요청

황숙주 순창군수가 18일 세종시를 방문해 군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날 황군수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집중 설명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 전라북도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만나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는 등 다방면에서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쏟았다.

이날 황 군수가 특히 공을 들인 사업은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 활성화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다.

동계 장군목과 용골산 치유의 숲은

군이 강천산과 함께 집중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로 생태체험과 산림치유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며 최근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진입로가 4m 정도로 협소해 대형차량의 출입이 어렵다는 것. 따라서 군은 동계 구미리에서 아치리 약 6.5km 구간에 폭 8.5m의 도로를 2020년까지 개설한다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에 국가예산 13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 했으며 기재부, 정치권과도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노후 상수도를 교체해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군민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군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노후관로 34km를 교체한다는 계획이라 국비 6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상수도관로의 노후화가 심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환경부 상수도정책과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황 군수는 "지역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특히 군민 삶과 지역개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필요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앙부처 설득과 정치권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게임·농업 연결한 '순창발 스마트영농' 현실화

도시민 농작물 가꾸기 게임, 순창 분양농장에서 활성화

도시민이 게임을 통해 농사를 지으면 순창의 농장에서 농업용 로봇이 작물을 대신 가꾸 주고 전문 농부들이 도와주는 스마트 영농이 현실화된다.

군은 '농업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디지털 도농교류 서비스'가 농림식품부가 주관하는 '2017년도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 개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 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순창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며 순창군이 총괄한다.

스마트 영농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공동체와의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 시스템을 만들고 관광과 연계하는 고부가가치 창출형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도시민들이 스마트폰 농작물 재배 앱을 통해 농사를 짓고 현실에서는 순창의 '스마트마실 농장'에서 농업용 로봇이 대신해 농사를 짓고 숙련된 농부들이 전문적인 농사기법들을 전수하고, 도와주는 방식이다.

도시민들은 구축된 포털을 통해 텃밭의 규모나 작물을 선택하고 농사를 짓는다.

피드백을 통해 농작물의 생육 환경도 볼 수 있으며 자신들이 가꾼 농산물은 구축된 커뮤니티 안에서 물물교환과 판매도 가능하다. 도시민 가족들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농촌을 체험하는 관광산업과도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 농사포털인 '농가 웰빙'가 구축과 오프라인 농장 '스마트 마실'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순창군은 구미면 사골에 하우스 661㎡, 노지 2,644㎡를 포함해 총 3,305㎡규모의 '스마트 마실' 농장을 준비 중이다. 대상 작물은 오이, 고추, 가지, 토마토, 참새초, 감자 6종이다.

올해 도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가상세계와 현실농촌을 융합해 도시민이 가상현실에서 직접 가꾼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농촌에 대한 지속적 관심으로 관광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도·농간 교류서비스 플랫폼 창출을 자신하고 있다. 또 스마트 영농을 통한 삼락농정 실현도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

순창군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표시내용과 부착위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로명판 866개소, 건물번호판 1만4,509개소, 마을 안내판 304개소, 기초번호판 398개소 등 총 1만6,077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6월까

지 진행된다.

안내시설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로 군은 조사결과를 최신 DB로 정비하고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내용은 ▲도로명판의

기·종점, 교차점 등 방향의 정위치 표시 및 훼손·망실 여부 ▲도로명판의 추가 설치 여부 ▲안내시설물 설치 장소의 적합성 여부 ▲각 세대의 건물번호판 보존상태 등이다.

군은 조사결과 시설물 훼손·망실 건은 신속히 정비하고 미설치된 교차로 및 건물 등에는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임실N치즈, 4년연속 대상 수상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서 국내최고 명품치즈 명성

"치즈는 역시 임실N치즈".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명품치즈인 임실N치즈가 소비자가 뽑은 '2017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 4년 연속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18일 동아닷컴과 환경닷컴, MBC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선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7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임실N치즈는 가공식품 분야의 대상을 거머쥐었다.

이날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정국의 대표 브랜드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업체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브랜드 대상 시상식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선정된 것으로서, 임실N치즈는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대한민국 1등 치즈로서의 명성을 다시금 입증받게 됐다.

임실군은 50여년의 치즈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치즈'라는 생소했던 외국 가공식품

을 지역의 대표 향토자원으로 발전시킨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낙농업과 치즈 산업을 군정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만큼 임실군은 곧 대한민국 치즈의 산역사인 셈이다.

특히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등 치즈체험관광이라는 새로운 농촌체험을 개척하는 등 대한민국의 치즈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임실N치즈는 임실군의 50여 농가의 4,000여 마리의 젖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1등급의 신선 원유만을 사용한다.

임실치즈농협을 비롯해 11개소의 목장형 유기농 공장에서 최고의 치즈 장인이 담일에 착유해 살균 과정을 거쳐 치즈와 요구르트 등을 생산 중이다.

치즈체험 관광 역시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임실N치즈 체험관광의 1번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6차 산업의 성공모델인 임실치즈마을은 치즈체험관광객이 연간 30만명 이상 방문하는 체험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교육지원청, 군단위 '최우수'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정내영)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 현장의 실질적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평가'에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교육정책청차 지원, 학교 업무최적화 지원,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전 영역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각 영역의 평가지표 중 참회력 신장을 위한 수업혁신 및 점복형 평가제도 구축노력, 꿈을 찾아가는 진로·직업 예술교육, 역사·예술교육 관련 교육지원청 중점정책에 대한 전방적인 노력이 우수했다는 평가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화재예방책 추진

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는 '연등', '꽃불' 등 화기사용이 증가하는 불교 최대 행사 초파일(初八日) 및 남원 지역 최대 전통문화축제인 춘향제가 성큼 다가옴에 따라 석가탄신일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남원·순창 관내 사람들은 대부분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화재 시 소화기를 제외한 소화기구 및 시설이 부족하고, 경보시스템이 구축이 미흡하며, 소방차량 접근 장애 조건이 많아 초기소화가 곤란하여 화재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연선사, 금화사 등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사찰 및 문화재 2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 현장 지도 방문, 목조문화재 화재진압훈련 등을 실시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립도서관 회원증 정비

임실군립도서관은 오는 5월까지 투명한 대출 및 원활한 도서 회수를 위해 '회원증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5만 여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1,8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군립도서관은 도서 회수의 예로사항을 극복코자 회원증 정비에 나섰다.

정비 기간 동안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하면 분실하거나 훼손된 회원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 가입을 원하는 지역민은 직접 방문에 신청 할 수 있으며 1인당 5권을 빌릴 수 있고 10일 이내에 반납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원활한 대출 순환을 위해 가입한 회원만 책을 빌릴 수 있다"며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순창이 참좋다. 순창 종합 사무기기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

▶ 렌탈전문 <